

울산석유화학공단, 산지 추곡수매 약정 체결

울산 석유화학공단협의회는 10월22일 울산 청량농협 회의실에서 이홍렬 공단협의회 회장과 박경훈 청량농협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산 추곡수매 약정을 체결했다.

협의회는 약정서 체결에 따라 10월 말부터 청량면 일대에서 생산되는 쌀 203톤(40kg 5076포대)을 2억9400여 만원에 매입하게 된다.

협의회는 추곡수매를 통해 정부 공공비축 1등급 기준(5만8000원)으로 매입하게 되며, 매입시 대금을 먼저 주고 2008년 1월 산지 쌀값 조사 결과에 따라 사후 다시 정산하게 된다.

울주군은 “석유화학공단협의회의 추곡수매 결정에 따라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쌀 사주기에 많은 기업들의 지속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울주군은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우리 쌀 사주기> 운동을 벌인 결과, 2006년 25개 기업에서 1200톤을 구입한데 이어 2007년에도 20여개 이상의 기업에서 총 1300톤 가량을 구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7/10/22>